

모멘텀파이낸스(Momentum Finance)

해당 번역본은 이용자가 디지털자산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 참고용으로 번역된 것이며,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습득을 위해서는
원문을 참고하시거나 원문 작성 주체 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두나무는 해당 번역본 내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고,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투자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모멘텀 백서

비전

모든 자산을, 모든 사람에게, 어디서든 거래 가능하게 한다.

개요

모멘텀은 암호화폐 자산과 실물 자산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매끄럽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글로벌 금융의 운영체제이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모멘텀은 다음의 세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

- **수이(Sui) 네이티브 자산 거래**
모멘텀은 수이 생태계를 위한 유동성과 인프라 레이어를 구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모멘텀 DEX(Momentum DEX), xSUI(리퀴드 스테이킹), 엠세이프(MSafe)(재무 관리 및 토큰 베스팅)**과 같은 핵심 제품들이 수이 네이티브 자산이 효율적으로 거래, 스테이킹,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모멘텀은 수이 생태계의 중앙 유동성 엔진으로 자리잡는다.
- **크로스체인 암호화폐 자산 확장**
수이 생태계가 충분히 통합되면, 모멘텀은 인프라를 확장하여 다른 블록체인의 자산을 지원한다. **웜홀(Wormhole)의 범용 메시징 레이어를 활용**해, 모멘텀 DEX는 크로스체인 토큰을 원활하게 상장하고 거래할 수 있으며, 엠세이프(MSafe)와 재무 관리 도구들은 멀티체인 유동성을 관리한다. 이 단계에서 모멘텀 사용자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가장 다양하고 풍부한 암호화폐 자산을 거래하고 수익화할 수 있다.
- **토큰화된 실물 자산(RWA, Real-World Assets) 통합**
마지막 단계에서는 증권, 원자재, 부동산, 지식재산권(IP) 등 조 단위 규모의 실물 자산을 모멘텀의 온체인 마켓플레이스에 통합한다. 디파이(DeFi) 네이티브 유동성, 규제 준수 인프라, 거버넌스 도구를 결합함으로써,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자산들이 암호화폐 시장과 상호 조합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모든 자산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통합 글로벌 거래 레이어가 열린다.

모멘텀은 온체인 상에서 차세대 글로벌 금융을 구동하기 위한 핵심 구성요소를 제공한다. 수이의 고성능 실행 환경 위에 구축되고, 웜홀의 범용 메시징 레이어와 통합되며, 보트에스크로(Vote-Escrow, ve) 인센티브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모멘텀은 차세대 10억 명의 사용자 온보딩을 가속화하고, 토큰화 경제에서의 기관 채택을 선도하도록 설계되었다.

차세대 글로벌 금융을 위한 운영체제

모멘텀은 토큰화된 세계의 금융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깊은 유동성과 최적의 거래 경험을 모든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제품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엠세이프(MSafe): 안전한 재무 인프라

엠세이프(MSafe)는 모멘텀의 기관급 멀티시그(Multi-Sig) 지갑 솔루션으로, 무브(Move) 기반 체인에서 재무 관리, 토큰 베스팅, 온체인 실행을 유연한 승인 절차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엠세이프는 무브 생태계의 부트스트래핑(초기 성장 기반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 **재무 관리:** 수이(Sui), 앵토스(Aptos), 무브먼트(Movement), 아이오타(IOTA) 등 주요 프로토콜의 재무 자금을 구성 가능한 멀티시그 보호 체계로 안전하게 관리한다.
- **토큰 베스팅:** 팀과 투자자가 투명한 온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토큰을 안전하게 잠금·일정 등록·분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dApp 스토어:**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앱 스토어를 통해 디파이(DeFi) 프로토콜과의 안전한 통합을 제공하여, DAO 및 팀이 멀티시그 보호 아래에서 안전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엠세이프는 수이, 앵토스, 무브먼트, 아이오타 등 무브 생태계 전반에서 거버넌스와 자본 관리의 보안 백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모멘텀 DEX(Momentum DEX): 무브 생태계의 중앙 유동성 엔진

모멘텀 DEX는 모멘텀 생태계의 대표 제품으로, 유니스왑(Uniswap) v3 스타일의 집중 유동성 마켓메이커(CLMM, Concentrated Liquidity Market Maker)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구축된 탈중앙화 거래소(DEX)이다. 2025년 3월 31일 베타 출시 이후(2025년 10월 22일 기준), 모멘텀 DEX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달성했다:

- **160만 명 이상의 고유 스왑 사용자 및 130만 명 이상의 유동성 공급자 온보딩**
- **총 예치 자산(TVL) 4억9천만 달러 달성**
- **누적 거래량 240억 달러 이상 처리**

기존 자동화 마켓메이커(AMM)는 유동성을 전체 가격 곡선에 수동적으로 분산시키지만, CLMM은 유동성 공급자(LP)가 자본을 특정 가격 범위에 집중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거래가 실제 발생하는 구간에 유동성이 집중되어 스프레드는 좁아지고, 유동성은 깊어지며, 슬리피지는 현저히 감소한다. 그 결과, 중앙화 거래소 수준의 거래 경험을 제공하면서도 디파이의 투명성, 보안성, 조합성을 유지할 수 있다.

모멘텀 DEX는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모두를 고려해 설계되었다.

- **개인 투자자:** 직관적이고 깔끔한 인터페이스, 단순한 스왑 플로우, 저수수료 구조, 통합 가이드 등을 통해 디파이(DeFi) 거래를 유연성을 유지한 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기관 투자자:** 고급 실행 도구, 깊은 유동성, 투명한 가격 구조, 안전한 자가 수탁을 제공하여 카운터파티 리스크 없이 수이(Sui) 시장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 **공통 기능:** 웜홀(Wormhole)을 통한 크로스체인 지원으로, 생태계 간 자산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매끄러운 사용자 경험을 보장한다.

모멘텀 DEX는 또한 수이의 **프로그래머블 트랜잭션 블록(PTB, Programmable Transaction Blocks)**의 이점을 활용한다. PTB는 복잡한 DEX 작업을 원자적(Atomic)이고 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복잡한 라우터 컨트랙트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트레이더는 여러 단계를 하나의 원자적 트랜잭션으로 묶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스왑 → 유동성 추가 → LP 스테이킹 → 보상 청구**의 과정을 한 번의 클릭과 서명으로 실행할 수 있으며, 전체 과정이 모두 성공하거나 전부 실패하는 방식이다. 체인 차원의 배치 기능이 내장되어 있으므로 사용자는 불필요한 승인 및 호출을 피할 수 있어, **낮은 수수료, 적은 권한 허용 위험, 개선된 UX**를 동시에 얻는다.

마지막으로, 수이의 **객체 중심 병렬 실행** 구조는 개별 풀들이 동시에 독립적으로 업데이트되도록 보장한다. 즉, 하나의 풀이 다른 풀의 활동으로 인해 지연되지 않는다. 이 구조는 **더 높은 처리량, 빠른 최종성, 좁은 MEV/샌드위치 공격 윈도우**를 제공하며, 개인과 기관 사용자 모두에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제공한다.

CLMM 아키텍처, PTB, 그리고 수이의 고성능 실행 환경을 결합함으로써, 모멘텀 DEX는 **자본 효율성, 사용자 친화적 설계, 기관급 인프라**를 동시에 실현하여, 토큰화된 시장의 유동성 엔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xSUI: 자본 효율적인 리퀴드 스테이킹

xSUI의 리퀴드 스테이킹 인프라를 통해 사용자는 단 한 번의 트랜잭션으로 수이 네트워크의 밸리데이터(Validator)에 SUI를 스테이킹하여 합의 보상(Consensus Rewards)을 얻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도 사용자의 유동성은 디파이(DeFi) 활용을 위해 그대로 유지된다. 이를 통해 모든 사용자는 직접 밸리데이터를 운영하거나 유지하지 않아도 블록체인 검증 과정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사용자는 단순히 xSUI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스테이킹함으로써 수이 네트워크의 보안성(Security)과 탈중앙성(Decentralization) 강화에 기여한다. 그 대가로, 사용자는 자신이 스테이킹한 SUI를 증명하는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 **xSUI**를 받으며, 이 토큰은 다양한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자유롭게 사용되어 추가 수익(Yield)을 창출할 수 있다.

xSUI를 통해 사용자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 유동성과 자본 접근성을 유지한 채 네이티브 스테이킹 보상을 획득
- 대출 시장, 유동성 공급, 금융 상품 담보 등 다양한 디파이(DeFi) 프로토콜에 xSUI를 활용

- 스왑 수수료, 유동성 인센티브, 생태계 포인트 등 여러 수익원을 동시에 누적
- 완전한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탈중앙화 및 밸리데이터 다양성의 이점을 동시에 확보

xSUI가 수이 디파이에 중요한 이유(Why xSUI Matters for Sui DeFi)

xSUI는 스테이킹된 SUI를 디파이 전반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수익을 창출하는 프리미티브(Primitive)로 변환한다. 기존의 잠겨 비활성화된 스테이킹 자산이 이제는 거래, 대출, 유동성 공급 등을 촉진하는 조합 가능한 자산(Composable Asset)으로 변화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는 더 높은 자본 효율성(Capital Efficiency)을, 생태계 전체에는 더 깊은 유동성(Deep Liquidity)을 제공한다.

모멘텀 DEX와의 통합은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한다. xSUI는 수익형 유동성을 거래소로 유입시키고, 모멘텀 DEX는 이를 스왑, 인센티브, 조합 가능한 디파이 마켓 등으로 확장한다. xSUI를 보유한 모든 유동성 공급자는 단순 SUI 보유자와 달리 스테이킹 보상까지 함께 획득하므로, 훨씬 자본 효율적인 선택이 된다. 채택이 확산될수록 더 많은 SUI가 xSUI를 통해 스테이킹되어 수이 네트워크의 보안이 강화되고, 생태계의 유동성 또한 심화된다.

xSUI는 수이 디파이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잠재력을 지닌다. 네이티브 스테이킹과 유연한 수익 기회를 결합함으로써, 보안성, 유동성, 조합성을 모두 충족시켜 사용자와 프로토콜이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리퀴드 스테이킹의 필요성

수이 네트워크는 위임 지분증명(DPoS, Delegated Proof-of-Stake) 방식을 기반으로 하며, 사용자는 검증자에게 토큰을 위임하여 블록체인의 보안성과 탈중앙화를 유지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용자에게 밸리데이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기술적·자원적 부담으로 인해 현실적이지 않다. 리퀴드 스테이킹은 이러한 과정을 간소화하여, 사용자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SUI를 위임하고 자동으로 스테이킹 보상을 받으며, 그 대가로 xSUI와 같은 리퀴드 토큰을 발행받도록 한다. 이때 xSUI는 단순히 유틸리티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거래·대출·유동성 공급 등 디파이 전반에서 활용되며 동시에 네트워크 보안에도 기여한다. 즉, 사용자는 체인을 보호하고 보상을 얻으면서도 추가적인 수익 기회와 높은 자본 효율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이로써 보안성과 수익성을 모두 갖춘 최적의 구조가 완성된다.

토큰 생성 연구소(Token Generation Lab, TGL): 블루칩 런치패드

토큰 생성 연구소(TGL)는 블루칩 프로젝트를 위한 모멘텀의 런치패드로, 전략적 지원·깊은 유동성·지속 가능한 토큰 분배 구조를 통해 고품질 팀의 성장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다. TGL은 수이 재단(Sui Foundation), 최상위 투자자, 마켓메이커, 중앙화 거래소(CEX), 블루칩 프로토콜 등 생태계의 핵심 주체들을 하나로 모아, 각 프로젝트가 첫날부터 장기적 성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TGL은 이러한 이해관계자 간의 정렬을 통해 전체 런치 프로세스를 효율화한다. 복잡한 협상이나 반복적인 승인 절차 없이, 프로젝트가 필요한 주요 파트너들과 직접 연결되는 채널을 제공하여 시장 출시 속도를 높이고 실행 리스크를 줄인다.

또한 인센티브 정렬을 강화하기 위해, TGL의 일부 수수료는 **15만 명 이상의 활성 모멘텀 생태계 참여자에게** 재분배된다. 여기에는 모멘텀 DEX 추천인 및 다양한 모멘텀 NFT 보유자가 포함된다. 이러한 구조는 광범위한 토큰 분배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프로젝트가 출시 즉시 활성화된 고품질 토큰 보유자 기반에 접근하도록 보장한다.

TGL의 차별점

기존 런치패드가 프로젝트로부터 가치를 추출하는 구조였다면, TGL은 오히려 가치를 되돌려주는(Value-Back) 구조로 설계되었다.

- 선불 스테이블코인 수수료 없음
- 프로젝트 토큰 덤프(Dumping) 없음
- 런치패드 수수료로 받은 토큰은 12개월간 잠금되어 깊은 유동성 확보
- 생태계 내 15만 명 이상의 장기 보유자에게 분배되어 커뮤니티와의 정렬 보장

토큰 발행 그 이상의 기능으로, TGL은 **모멘텀 DEX로 향하는 전략적 유입 경로** 역할을 수행한다. TGL을 통해 출시되는 모든 프로젝트는 자연스럽게 DEX 생태계에 통합되어 새로운 유동성 풀, 거래쌍, 사용자 활동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모멘텀 DEX로 지속적인 신규 자산과 커뮤니티가 유입되며, 거래량 증가 유동성 심화 시장 다양성 확장이 이루어진다. TGL을 블루칩 프로젝트의 진입점으로 설정함으로써, 모멘텀은 자사의 DEX가 수이(Sui) 및 그 너머 생태계의 중앙 유동성 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보장한다.

전략적 파트너십, 지속 가능한 토크노믹스, 커뮤니티 정렬형 분배 구조를 결합함으로써, TGL은 프로젝트가 단기적 과열(Hype)이 아닌 **실질적 유동성, 강력한 커뮤니티 참여, 지속 가능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시장에 진입하도록 돕는다.

볼트(Vaults): 자동화된 수익, 간단하게

모멘텀 볼트(Momentum Vault)는 사용자가 자산을 예치하고 자동화된 고성능 전략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으로, 별도의 거래나 리밸런싱 없이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TVL(총 예치 자산)을 유도한다. 이 전략들은 숙련된 큐레이터들이 설계하며, 다른 생태계에서 입증된 데이터 기반 접근법을 수이(Sui)에 도입하여, 일반 사용자에게도 고급 디파이(DeFi) 참여자 수준의 수익 기회를 제공한다.

모멘텀은 세 단계를 거쳐 볼트를 출시하며, 각 단계는 점차 더 강력한 자본 활용 방식을 제공한다.

1단계: 자동 리밸런싱 볼트

모멘텀 DEX의 단일 거래쌍 포지션을 자동으로 관리 및 최적화하여, 수동 조작 없이 효율적인 유동성과 높은 수익률을 실현하는 볼트이다. 이 볼트는 모멘텀 DEX 거래 활동에 직접 연결되어, 수이 디파이 전반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거래 품질을 향상시킨다.

2단계: 전략형 볼트

고급 전략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큐레이션 볼트로, 다음과 같은 전략이 포함된다.

- **레버리지(Leverage)** – 차입 자금을 활용해 포지션 규모와 수익률을 확대

- **루핑(Looping)** – 예치 자산을 담보로 대출 후 재예치하여 수익을 누적
- **멀티페어(Multi-Pair)** – 하나의 볼트에서 여러 거래쌍을 동시에 운영
- **멀티전략(Multi-Strategy)** – 다양한 전략을 결합하여 위험 대비 수익률 최적화

이러한 전략들은 수이의 대출 시장, AMM, 기타 조합 가능한 프로토콜과 통합되어, 생태계 효용을 확장하고, TVL 성장을 촉진하며, 전체 디파이 구조의 견고함을 강화한다.

3단계: 멀티체인 볼트

EVM 체인, 솔라나(Solana), 수이(Sui)를 포함한 여러 생태계의 자산을 동시에 수용하는 최초의 볼트로, 외부 유동성이 모멘텀과 수이 디파이로 유입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연다. 이 볼트들은 생태계 간 유동성을 연결(Bridge)함으로써 크로스체인 디파이 프로토콜과의 새로운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수이를 글로벌 토큰화 유동성의 허브로 확장시킨다.

볼트가 중요한 이유

1. **자본 효율성과 사용자 편의성** – 대부분의 사용자는 복잡한 디파이 전략을 직접 실행할 시간·도구·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 볼트는 이러한 과정을 자동화하여, 몇 번의 클릭만으로 기관급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2. **생태계 성장** – 다중 체인 자산을 지원함으로써 외부 유동성이 수이로 유입되고, 이는 TVL 증가, 모멘텀 거래량 확대, 수이의 디파이 내 입지 강화로 이어진다.
3. **유동성 유지력** – 자동화된 전략은 사용자가 자금을 더 오래 예치하도록 유도하여, DEX의 유동성을 더욱 안정화시키고 단기적 변동성을 완화한다.

전문 큐레이터, 단계별 출시, 그리고 단순 파밍을 넘어선 고도화된 전략을 결합함으로써, 모멘텀 볼트는 **수이에서 자동화된 디파이 수익의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멘텀 X(Momentum X): 통합 거래 및 준법 플랫폼

모멘텀 X는 토큰화된 자산의 거래와 규제 준수를 통합한 최초의 기관급 플랫폼이다. 현재 토큰 발행자들은 각기 다른 체인에서 독립적인 KYC 제공자와 협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솔라나(Solana)에서 엔비디아(Nvidia) 주식 토큰을 거래하고, 다른 체인에서 해당 수익을 상환하거나, USDy 같은 상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각 중개 기관을 통해 신원을 반복 인증해야 한다. 이러한 분절화는 거래 마찰을 일으키고, 유동성을 제한하며, 기관의 대규모 도입을 가로막는다.

모멘텀 X는 수이 기술 스택(Sui, Walrus, Seal)을 기반으로 한 범용 KYC/AML 레이어를 도입하여 이를 해결한다. 참여자는 한 번의 인증으로 모든 통합 자산과 프로토콜 — 토큰화된 주식, 원자재, 실물 자산(RWA), 수익 상품 등 — 에 접근할 수 있다. 컴플라이언스 로직은 Seal의 프로그래머블 접근 제어를 통해 온체인에서 직접 집행되어, 중앙화된 게이트키퍼 없이도 전송, 수익 분배, 2차 거래가 완전히 규제 준수 상태로 유지된다.

영지식 신원, 온체인 규제 준수, 크로스체인 상호운용성을 결합함으로써, 모멘텀 X는 분절된 파일럿 프로젝트를 하나의 통합 생태계로 전환한다. 발행자, 기관, 프로토콜은 대규모 확장이 가능해지고, 사용자는 하나의 신원과 플랫폼으로 글로벌 토큰화 시장에 매끄럽게 접근할 수 있다.

왜 토큰화된 실물자산(RWA)에 새로운 인프라가 필요한가

토큰화는 조 단위의 유동성을 열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지만, 현재의 인프라는 그 약속을 실현하기에 부족하다.

- **분리된 발행** – 각 발행자가 자체 KYC 절차를 운영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매번 신원을 반복 인증해야 한다.
- **조합성 결여** – 동일한 실물 자산을 기초로 한 토큰이라도 체인이 다르면 별개의 상품으로 취급되어 유동성이 분산되고, 비효율이 발생하며, 통합된 시장 형성이 어렵다.
- **오프체인 준법 관리** – 규제 집행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아닌 중개자에 의해 오프체인에서 이루어지므로, 투명성과 확장성이 제한된다.

수이의 풀스택 아키텍처, 영지식 신원, 웜홀(Wormhole) 상호운용성, 온체인 컴플라이언스를 결합한 모멘텀 X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즉, 분절된 파일럿 환경을 하나의 통합되고 조합 가능한 마켓플레이스로 전환하여, 규제된 대규모 거래가 가능하고 완전히 연결된 글로벌 시장을 실현한다.

모멘텀 X의 기반은 다음과 같다:

- **진정한 유동성 통합** – 동일한 기초 자산에 대한 분절된 시장을 하나로 통합한다.
- **기관급 규제 준수** – 규제 집행 로직이 토큰 표준 내부에 직접 내장되어 있다.
- **완전한 디파이 통합** – 토큰화된 실물자산(RWA)이 암호화 자산과 함께 거래·대출·예치·스테이킹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MMT 토큰 유틸리티

본딩 메커니즘 MMT는 모멘텀 생태계의 거버넌스 토큰으로 기능하며, 보트 에스크로(Vote-Escrow, veMMT) 모델을 채택한다. MMT를 본딩하면 veMMT가 생성되며, 이 메커니즘은 본딩된 MMT의 양과 잠금 기간에 비례해 거버넌스 권한이 부여된다. 이를 통해 토큰 보유자와 프로토콜의 장기적 건전성 간의 인센티브 정렬이 이루어진다.

거버넌스 및 참여 veMMT 보유자는 프로토콜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는 개선 제안, 파라미터 변경, 인센티브 배분, 거버넌스 구조 발전 등에 대한 투표 권한을 포함한다. 이 시스템은 활발한 참여를 장려함과 동시에 생태계의 장기적 정렬 및 안정성을 촉진하도록 설계되었다.

커뮤니티 보상 MMT는 모멘텀 생태계의 핵심으로, 온체인 활동, 프로토콜 성장, 커뮤니티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토큰이다. 유동성 공급, 거래, 투표 등 생태계 확장에 기여하는 사용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분배 메커니즘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하고 의미 있는 기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권 접근 veMMT를 보유하면 모멘텀 생태계 전반에서 특권적 접근 권한이 부여된다. 예를 들어, 신규 수익형 볼트에 대한 조기 참여, TGL(Token Generation Lab)의 우선 할당, 향후 출시될 제품과 기능의 베타(beta) 접근 권한이 주어진다.

면책 고지

MMT는 소유권, 수익 권리 또는 어떠한 형태의 증권적 이익도 나타내지 않는다. 또한 미래의 가격 상승이나 시장 성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그 유일한 목적은 모멘텀 프로토콜 내에서의 유틸리티 제공과 참여 활성화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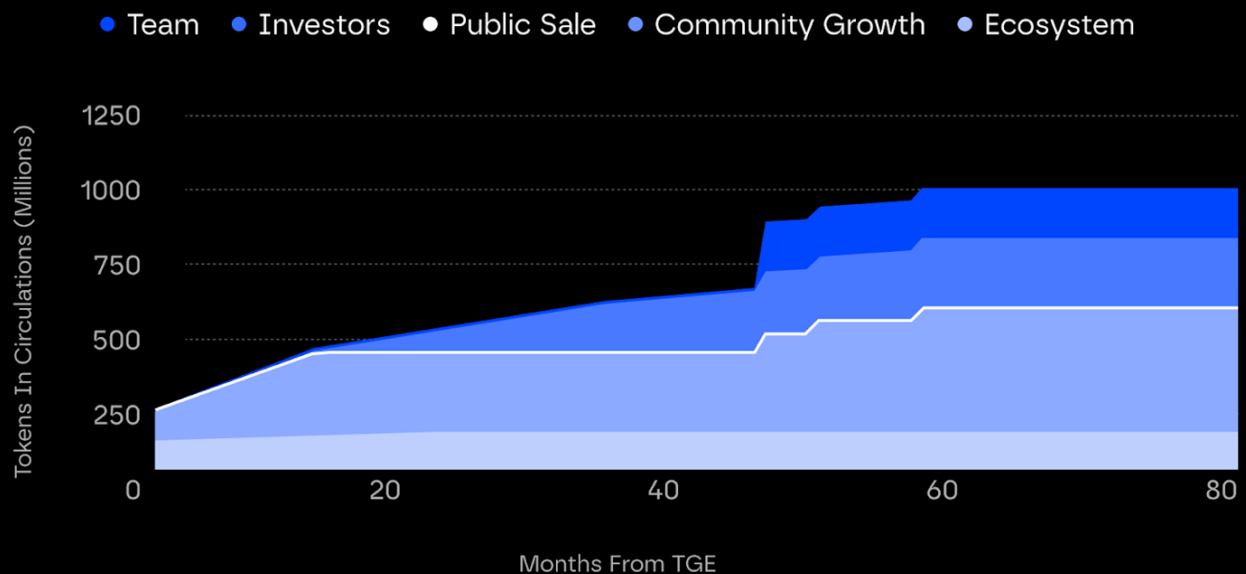
MMT 토크노믹스

MMT의 총 발행량은 1,000,000,000 MMT이다. 토큰 생성 이벤트(TGE, Token Generation Event) 시 초기 유통량은 205,427,000 MMT (약 20.54%)로 설정된다. 이러한 정교하게 조정된 초기 분배 구조는 시장의 초기 유동성과 프로토콜의 장기적 가치 창출 및 거버넌스 안정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MMT Token Allocations



\$MMT Token Unlock Schedule



모멘텀파이낸스, MMT 토큰 할당도

위 차트는 토큰 분배 구조의 세부 비율을 시각적으로 나타낸다.

모멘텀파이낸스의 토크노믹스는 단기 시장 유동성과 장기적 지속 가능성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는 투자자, 팀, 생태계 리저브를 대상으로 단기 토큰 분배와 확장된 베스팅 일정을 전략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달성된다. MMT 토큰은 거버넌스의 기반, 생태계 인센티브의 촉매제, 그리고 탈중앙화 및 전통 금융 생태계 전반에서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메커니즘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었다.

- 생태계(13%)

- 모멘텀 생태계에 기여하는 개발자와 빌더들에게 할당된다. 예를 들어, 거버넌스 도구 개발, 대출 시장 확장, 생태계 토큰의 신규 프로토콜 통합 등의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또한 생태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해커톤을 후원하고, 신제품 개발 등 기술적 혁신을 장려하는 인센티브로 사용된다. TGE 시 9%가 언락(Unlocked)되며, 24개월 베스팅(Vesting)이 적용된다.
- 이 항목에는 또한 중앙화탈중앙화 거래소 전반의 깊은 유동성 확보 및 원활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유동성 풀 구축 자금이 포함된다.
- TGE 시점에는 전략적 유동성 캠페인을 통해 초기 시장 진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스테이킹 프로그램 등 장기 보유자 유입을 위한 마케팅 활동에도 사용된다.

• 커뮤니티 성장(42.72%)

- 모멘텀 생태계의 확장과 커뮤니티 강화를 위해 배정되며, 주요 사용처는 다음과 같다:
 - **유동성 인센티브**: 유동성 공급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생태계 거버넌스 참여를 독려하여 깊은 유동성을 유지하고 프로토콜 성장을 촉진한다. 거래자토큰 보유자LP 간의 인센티브 정렬을 통해 장기적 생태계 회복력과 지속 성장을 달성한다.
 - **마케팅 및 채택**: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신규 사용자 확보, MMT의 장기적 채택을 위한 캠페인 및 전략적 파트너십에 사용된다.
 - **리스크 관리**: 지속적인 보안 감사, 모니터링,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를 통해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유지한다.
 - **실물자산 통합**: 실물자산(RWA)의 도입을 촉진하여 온체인 유동성과 실물경제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생태계의 실질적 활용성을 확대한다.
 - 커뮤니티의 범위를 확장하고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리테일 사용자를 참여시키며, WAGMI 트레이딩 대회 시즌 1부터 시즌 3까지의 참가자와 Momentum Title Deed NFT 보유자를 포함한 모멘텀파이낸스의 초기 지지자 및 충성 사용자에게 보상을 제공한다.

• 투자자/초기 후원자(24.78%)

- 프로젝트 초창기부터 모멘텀을 지원해온 초기 투자자들에게 배정된다. 토큰은 TGE 시점에서 0% 언락되며, 최소 1년의 클리프(Cliff)가 설정되어 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비전과 프로토콜 성장에 대한 지속적 헌신을 보장한다.

• 퍼블릭 세일(1.5%)

- 이 항목은 Buidlpad를 통해 참여하는 커뮤니티 지지자들에게 배정된다. 해당 분배는 생태계의 초기 참여와 실질적 기여를 장려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신원 및 지갑 검증, 봇 방지 요건, 공정한 런치 원칙 준수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참여 자격이 결정된다. 할당된 토큰은 TGE 시점에 100% 언락되어 즉시 거버넌스 및 유틸리티 사용이 가능하지만, 장기적 이해관계 정렬을 보장하기 위해 의심 거래 감시 및 보안 조치가 병행된다. 또한 WAGMI 상위 티어 참가자 및 UGC 크리에이터에게 우선 할당이 제공된다.

• 팀(18%)

- 모멘텀을 구축하고 유지해온 창립팀 및 핵심 기여자(현재 및 향후 포함)에게 배정된다. 4년 클리프가 적용되며, 팀은 투표 기반 보상을 통해 인센티브를 얻으며 프로토콜의 장기적 가치 극대화 목표와 정렬된다.

• 에미션(Emissions)

- TGE 이후 3~6개월 내에 모멘텀 DEX가 ve(3,3) 모델로 전환되면 에미션이 개시된다. 이 표준적인 ve(3,3) 설계 하에서 유동성 공급자는 에미션 보상을 받으며,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하는 veMMT 보유자는 프로토콜 인센티브를 통해 생태계 성장과 의사결정에 기여한 대가를 보

상받는다. 자세한 ve(3,3)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추후 공식 거버넌스 제안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로드맵

모멘텀파이낸스는 토큰화 시대의 로빈후드(Robinhood)이다. 단순한 DEX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 기관 이든 누구나, 어디서나, 모든 자산을 온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모멘텀은 세 단계의 정교하게 설계된 로드맵을 통해 주요 기능을 순차적으로 구현한다. 각 단계는 유동성을 축적하고, 시장 영역을 확장하며, 컴플라이언스 및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1단계: 수이(Sui)에서의 강력한 정착

1단계에서는 수이(Sui) 네트워크 위에 모멘텀의 핵심 기반을 구축하며, 모멘텀 DEX가 생태계의 중심 유동성 엔진으로 작동한다. 이 DEX는 집중 유동성 구조와 ve(3,3) 인센티브 설계를 결합해, 유동성 보상이 생산적인 풀로 배분되도록 유도하고, 주문서(오더북)의 깊이를 강화하며, 거래 슬리피지를 최소화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빠르고 효율적인 거래 환경을 경험하고, 유동성 공급자는 자본 활용도를 높이면서 투명한 게이지 투표(Gauge Voting)를 기반으로 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빌더들은 예측 가능한 프로토콜 구성요소 위에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조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어, 생태계 전반의 확장성과 상호운용성을 강화한다.

이 단계에서는 엠세이프(MSafe)를 통해 기관 투자자 수준의 접근 제어를 구현하고, xSUI를 통해 디파이(DeFi) 환경에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자본 효율적 스테이킹을 제공한다. 이러한 핵심 구성요소는 출시 초기부터 건전한 거래 흐름을 형성하며, 거버넌스가 유동성을 가장 높은 효율을 창출하는 영역으로 배분할 수 있는 조정력을 제공한다. 또한 토큰 생성 연구소(TGL, Token Generation Lab)의 출시는 투명하고 확장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플랫폼 위에서 블루칩급 프로젝트와 커뮤니티를 위한 큐레이션 런치패드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와 실제로 기여하는 리테일 사용자를 연결하여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생태계를 조성하고, 장기적인 이해관계 정렬을 실현한다.

2단계: 크로스체인 유동성 확장

2단계에서는 모멘텀이 수이(Sui) 내 1위 DEX의 위치를 넘어 크로스체인 확장으로 나아간다. 이 확장은 두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첫째, 볼트(Vaults)는 자동 리밸런싱 전략부터 루핑(Looping), 레버리지(Leverage), 멀티페어, 멀티전략 등 고급 전략 구조까지 단계적으로 출시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복잡한 운용 과정 없이도 경쟁력 있는 연이율(APR)을 얻을 수 있으며, 볼트의 운용 효율은 DEX의 더 깊은 유동성 풀과 더 좁은 스프레드로 이어진다.

둘째, 웜홀 네이티브 토큰 전송(Wormhole Native Token Transfer, NTT) 기능은 자산 온보딩 시간을 몇 달에서 몇 분으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이더리움(Ethereum), 솔라나(Solana) 등 주요 생태계의 토큰을 하나의 통합된 거래 환경으로 브릿징(Bridging)할 수 있다. 그 결과 시장의 분절화가 완화되고, 신규 거래쌍 생성 속도가 빨라지며, 실제 수요 신호에 기반해 유연하게 작동하는 유동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

다.

크로스체인 확장이 본격화됨에 따라 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표준화된 오라클 통합, 볼트 단위 리스크 한도, 그리고 고정 일정이 아닌 활용도와 수수료 수익에 따라 자동 조정되는 프로그램형 에미션을 도입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확장 기반을 마련한다.

3단계: 토큰화 시대의 로빈후드

모멘텀은 단순한 DEX가 아니다. 개인 투자자이든 기관이든 누구나, 어디서나, 모든 자산을 완전히 온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모멘텀 X(Momentum X)가 도입된다. 모멘텀 X는 컴플라이언스와 신원 인증을 통합한 인프라로, 규제 대상 자산이 암호화 자산과 동일한 인터페이스 내에서 함께 거래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범용 KYC/AML 시스템과 프로그래머블 접근 제어 기능을 토큰 레벨에 직접 내장하고, 수이(Sui) 기술 스택(암호화 데이터 저장 및 프로그래머블 권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증 데이터를 비공개이면서도 이동 가능하고 감사 가능한 상태로 유지한다.

모멘텀 X를 통해 발행자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손쉽게 토큰화할 수 있으며, 개인 사용자는 한 번의 인증으로 자격이 부여된 모든 시장에서 재인증 없이 거래할 수 있다. 한편 거버넌스는 상장 기준, 공시 요건, 투자자 보호 정책을 정의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 이로써 블록체인 자산과 실물자산(RWA)은 하나의 거래소 환경에서 공존하며, 일관된 사용자 경험과 규제 인식형 거래를 제공한다.

또한 3단계에서는 파생상품 거래소(Perpetual DEX)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견고한 리스크 엔진, 자금 조달 메커니즘, 그리고 시장 복원력을 높이는 오라클 설계를 통해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구현한다. 아울러, 기관 전용 기능으로는 커스터디 연동, 감사 추적, 그리고 토큰화 자산에 대한 선택적 준비금 증명 인증이 도입된다. 이 모든 기능은 거버넌스의 감독 아래 운영되어, 모멘텀 생태계가 신뢰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갖춘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실행 중인 제품

- MSafe
- Momentum DEX
- xSUI
- Vaults

예정된 출시

- Perp DEX: 2025년 4분기(Q4 2025)
- TGL: 2026년 1분기(Q1 2026)
- Momentum X: 2026년 2분기(Q2 2026)

미래

모멘텀은 차세대 글로벌 금융을 구동하는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모든 제품은 단 하나의 간단한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구성 요소이다 — “모든 자산을, 어디서나, 마찰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웹2(Web2)와 웹3(Web3) 자산은 하나의 통합된 마켓플레이스에서 공존하며, 사용자는 디파이(DeFi)의 투명성과 자기 수탁의 장점을 누리고, 기관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규제 준수, 거버넌스, 통제를 확보한다.

과거 체인별로 분리되어 있던 암호화폐 시장과 다양한 체인에서 발행된 토큰들은 이제 하나의 개방형 유동성 레이어의 일부가 되어, 가치는 끊임 없이 이동하고, 자본 생산성은 항상 극대화된다. 모멘텀에 의해 구동되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경계 없는, 중개 없는, 제한 없는 조합 가능한 토큰화된 마켓플레이스로 진화한다.

우리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